

# 고판화 아카이브 구축 박차

### 초대회장으로 한선학 박사 “박물관·단체 결성에 주력”

한국고판화학회(이하 학회)가 국내 최초로 고판화박물관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고판화 관련 박물관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한국고판화학회가 9월 17일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열고 첫 발을 디뎠다.

이 날 총회에는 고판화 분야에 관련된 미술사, 서지학, 불교학, 박물관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해인사박물관, 삼성출판박물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청주 고인쇄박물관, 안동 유교문화 박물관을 비롯해 고려대장경연구소, 해인사 대장경 목판 보존실, 안동 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고판화학회는 초대회장으로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을 선출했으며, 감사로는 임노직 유교문화박물관장과 前 해인사 박물관장인 본혜 스님을 선임했다. 정병모 경주대 교수와 박도화 동국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가 총무, 학술, 출판이사를 각각 맡았다.

고판화학회는 고판화 관련 기관들과 학자들의 정보교류를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외의 답사 및 국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고판화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 서고

한선학 박사(고판화박물관장)는 “지식 문화의 보고인 고판화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박물관, 단체들이 모여 학회를 결성해 흩어진 고판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 고판화가 발전되었던 국가와 국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아시아가 선도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임기 동안 아시아 고판화 아카이브를 결성할 수 있는 교류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1차 해외 고판

화 학술 답사를 내년 1월 중에 중국 양주, 남경, 항주 등 고판화가 발전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5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인쇄 연구의 현재와 미래’, 박도화 동국대 교수가 ‘고판화 연구와 현재와 미래’를 주제발표했다. 또 김정희 원광대 교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이어 고판화박물관의 목판 답사와 안동 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목판연구소의 목판 답사도 1박 2일로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 “고판화 연구는 불교문화 연구 초석”

남권희 경북대 교수

한국 고판화학회 창립총회서 기조 발제

“인쇄술은 문자의 보급과 책의 수요 등 사회문화적 요소와 기술적인 측면이 모두 뒷받침될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고판화 연구는 이런 사회문화, 기술 발전 연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9월 17일 열린 한국고판화학회 창립 세미나에서 주제발표 ‘고인쇄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고판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사회문화적으로 불교문화가 융성하여 활발한 불교 신앙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기술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 먹과 붓의 전래 등 인쇄술의 발전에 필요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신라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간행됐고, 고려시대에는 <보협인타라니경>(寶印陀羅尼經)을 비롯해 여러 경전들이 계속 간행됐다. 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술을 창안해

## 한국고판화학회 창립총회



1377년에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불조직지심체요절>(白佛祖直指心體要節)을 인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교수는 “조선 후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방각본까지 나타나 우리민족의 문화와 교육, 독서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지대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고판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책을 찍어내고 찬란한 인쇄문화를 꽃피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볼 수 있다”고 관련 연구 촉진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10월 1일, 금오 선사 조명하는 첫 학술대회

근현대 선지식으로 정화불사의 주역 금오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금오 스님은 정화의 주역으로 현대 한국 불교의 초석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구도를 통해 경허-만공-보월로 이어지는 근대 선맥의 중심에 있는 간화선의 대종장이다.

금오선 수행연구원(원장 월서)과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소장 종호)는 10월 1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금오태전 대선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3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종호 스님(금오 선사의 심사상 이해) ▷윤원철 서울대 교수(금오 선사의 수행관) 김방룡 충남대 교수(금오 선사의 생애와 당시의 불교계) ▷신규택 연세대 교수(금오 선사의 선사상) ▷신성현 동국대 교수(금오 선사의 계율관) ▷이덕진 강원문성대 교수(금오 선사의 간화선법에 대한 고찰)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불교정화운동에 있어서 금오 선사의 역할) ▷김경집 진각대

교수(금오 선사의 불교정화운동과 그 불교사적 의의) ▷박해당 서울대 연구교수(금오 선사의 불교인식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이 발표된다.

개막식은 지방 참가자들을 고려해 오후 1시 30분 봉행된다.

금오선수행연구원장 월서 스님은 “금오 스님은 불철주야 수행만을 해와 문자의 불립(不立)으로 인해 남긴 선문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금오 스님의 정신·사상을 계승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쇄신과 인재양성, 학문연구의 진척에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조계종의 근간을 이룬 금오 스님 등 근현대 선지식은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소홀함이 적지 않았다. 선지식을 학술적으로 조명·선양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오선수행연구원은 2008년 월서 스님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했다. 설립 이후 출몰 금오 스님의 수행관 계율관 선사상관



정화사상 등을 연구·조명해 왔다. 이를 정리해 2008년 10월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과 2010년 금오 스님의 법문집인 <금오집>을 발간했다. (02)2260-8512 조동섭 기자

# 공안 법당(내원당)에 불교의 비밀이

황인규 동국대 교수

보조사상연구 학술대회서 발표

고려시대 국사와 왕사는 불교계를 대표하고 민중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다. 또 선대 왕의 추념 도량을 창건하고 운영하기도 하는 등 왕실불교를 책임졌다.

이들은 궁궐 내에 도량인 내원당을 설치해 비구니 도량인 정엄원과 짝을 이뤄 불교신행을 담당했다. 특히 내원당은 왕실불교를 주관하고 더 나아가 국가불교 시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 내원당 주지는 국사와 왕사 다음의 위치에 있었던 고승이지만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9월 17일 개최한 제97차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고려시대 내원당의 역할과 그 주지의 영향력에 대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이날 “내원당은 교세가 가장 큰 종단 중 왕실과 밀접한 종파의 고승이 선종대 임원했다. 고려전기 교종 화엄종과 고려 후기 선종계에서 내원당에 임원한 기록에서 왕실불교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내원당에 임원해 주석했던 고승들은 교종에서는 승통 이상이 선종에서는 대선사 급이 감주로 임명됐다”며 “내원당 감주를 거쳐 왕사에 책봉됐을 뿐만 아니라 왕사 책봉 후에는 지방의 하산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내원당 주지, 감

주는 실질적인 왕실, 수도불교의 중심인사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박사는 황 교수의 논문에 대해 ▷고려시대 내원당의 사료 정리 ▷고려 왕실불당 내원당의 존재의 부각 ▷내원당의 변천 조명 ▷내원당의 고승과 그 행적 조명 ▷고려시대 왕실불당 신행연구의 초석의 측면에서 높은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윤기범 서울대 일본연구소 박사도 “고려불교의 전개과정을 조명할 수 있는 연구 논문으로 발전 가능하다. 사료조사를 통해 내원당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10월 8일, 한국미술사연구 석굴암 불상 조명 학술대회

경주 석굴암의 불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0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에서 ‘토함산 석굴 불상의 최초 종합적 연구’를 주제로 제23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이 ‘토함산 석굴의 유가종 사상과 본존불상’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이어 관련 학자들이 석굴 자체의 유래와 개별 석굴암 불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 한국사회와 퇴공 성철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 전북불교대학 야단법석

## - 참 나를 찾는 수행결사 -

무릇 수행하는 모양을 내는데 집착하거나 소리조만 법을 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는 사람과 같으니, 벽돌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는 바와 같이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저 회양화상의 말처럼 소가 수레에 매여 있을 때 수레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청량한 기운이 이는 이때에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배우고, 바라보고, 닦아서 참나를 찾는 길에 다 같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2일~11월 27일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30분 (총 6회)
- 장 소 :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
- 문 의 : 전북불교대학 063)226-7878 FAX 063)226-7879
- 후 원 : 전북불교대학 총동창회 / 협찬: (유)거목종합건설 대표 반재상 (23기 대학회 회장)

1	10월 2일	용타스님	동사섭 행복마을 이사장	금강경에 담긴 수행결사	
2	10월 9일	해남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울주	울장에 담긴 수행결사	
3	10월 16일	향봉스님	익산 사자암 주지	육조단경에 담긴 수행결사	
4	10월 23일	현웅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간화선에 담긴 수행결사	
5	10월 30일	시몽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선어록에 담긴 수행결사	
6	11월 27일	도법스님	조계종 자성과 색신결사 추진본부장	생령명화경과 나의 수행	
* 조계종 후원특강 *					
※	11월 6일	진옥스님	여수 석천사 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행복한 가족	

전북불교대학 학장 무설 한광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48-5 완산불교회관

# 온라인 무료 강원생 모집

본종 중앙승가강원에서는 포교일선에서 전법에 여념이 없으신 사문들을 위해 전학년 무료로 사이버 공간(온라인)을 이용한 강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맺으실 사문들을 기다립니다.

- ▶ 모집학과 : 승가학과 00명 (선착순)
- ▶ 응시자격 : 승려, 법사(가입종단 상관없음)
- ▶ 교과과목 : 아함경, 법구경, 금강경, 능엄경, 원각경
- ▶ 교학기간 : 3년 6학기
- ▶ 응시기간 : 9월 30일까지 (10월 10일 개강예정)
- ▶ 응모방법 : [www.arahan.org](http://www.arahan.org)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신 다음  
→ 종단기관 → 중앙승가강원 → 승가학과 아래쪽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다음 031)753-3354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
- ▶ 문의메일 : [nibvana@hanmail.net](mailto:nibvana@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대륜불교조계종 중앙승가강원

043)848-7556 / 031)753-7377